

“아시아의 아침, 시련 딛고 세계를 밝힐 것”

아시아문화페스티벌 개막

고은 시인 등 세계 문인들

5·18묘지 참배로 일정 시작

4일까지 포럼·사랑방 환담 등

“아시아”에는 여전히 시련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질곡의 밤’은 아니다. ‘아시아의 아침’은 아시아를 밝히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밝히는 계기로 나아가야 한다.”

‘아시아의 아침’을 주제로 한 제1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이 1일 오후 참가자들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조직위원장인 고은 시인을 비롯해 미국 시인이나 극작가, 로고우, 프랑스 시인이며 파리8대학 명예교수인 글로드 무사르 등 세계 문호들과 윤정모 작가, 신현립 시인 등 국내 문인 30여명 등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참배단을 대표해 고인 시인이 현화와 분양을 한 데 이어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고은 시인은 “이번 아시아문화페스티벌이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의 인권과 평화를 밝히는 불빛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배와 분양을 마친 일행은 먼저 윤상원 열사와 윤한봉 열사가 잠들어 있는 묘지로 발길을 옮겼다.

이 자리에서 고은 시인은 “윤상원은 참지식인의 표상이었다. 살아 있었다면 분명 시인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생전에 몇 번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영혼 자체가 한 편의 시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문화페스티벌에 참가한 고은 시인(오른쪽)을 비롯한 세계 문인들과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왼쪽)가 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어 윤한봉 열사에 대해서는 “조금의 티끌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수한 삶을 지향했던 사람”이라며 “미국 명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투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다.

광주를 찾은 세계 문호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반응을 나타냈다.

글로드 무사르 프랑스 시인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다. 프랑스의 역사에도 광주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며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인에 의해 친족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이란 시인이나 극작가인 삼즈 랑루다는 자신의 수감생활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표

했다. 그는 “1975년 페르시아에 문학을 가르치다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후 수감생활까지 했다”며 “정치적 박해와 희생을 당한 분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아프다”고 말했다.

묘지를 둘러본 참가자들은 이후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자리를 옮겨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전당 투어를 했다. 오후 6시부터 8시 까지는 초청자가 환영리셉션이 진행됐다.

한편 첫 날 행사는 ‘크로스 낭독 공연’ 시간이 펼쳐졌다. 4시부터 트레블라운지에서 안상학 시인, 정지아소설가, 박소란 시인 등이 출연해 작품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연의 시간을 가졌다.

2일에는 주로 강연 및 포럼이 예정돼 있

다. 저녁(8시~9시30분)에는 나윤선-고은의 노래와 시의 하모니 ‘산과 바다에 우리가 살고’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3일에는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날로 전라도 기행이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4일(오전 10시30분)은 문학 페스티벌 본 대회인 ‘아시아의 아침’ 막이 오른다. 고은의 대회사, 문제부장관 도종환 시인 ‘아시아의 아침을 위한 축시’, 웰레 소잉카의 메시지, 아시아문화상 시상식, 축하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해외 초청 작가들의 소품 전시 및 포엠시네마 관람,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랑방 환담 등이 운영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5·18 다른 ‘애꾸눈 광대…’ 6일 국회 무대에

80년 오월을 무대로 한 연극 ‘애꾸눈 광대-어머님 전상사’(사진)가 국회 무대에 오른다.

‘애꾸눈 광대-어머님 전상사’ 공연이 광주광역시 주최,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오는 6일 오후 8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전국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순회공연으로 기획됐으며 ‘애꾸눈 광대-어머님 전상사’는 지금까지 10회 상설공연과 4회 순회공연에서 전석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세월호 유가족, 경기 안산 양지중학교 학생 등의 단체관람 사전 예약을 비롯해 다양한 관람 문의가 몰려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애꾸눈 광대’는 80년 5월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주인공 이지현 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일제 강점기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아린 나이에 시집 온 어머니와 5·18로 인해 풍비박산 난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7942, 010-4190-518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방공기업 등 824곳 채용비리 특별점검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2개월 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5년간이다.

행안부는 이 기간 중 각 기관에서 채용 청탁이나 채용 관련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어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에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대책본부는

각 기관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한다. 또한, 특별점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울려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 접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더욱 절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높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범위와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영광 낙월도서 세프 요리 맛본다

해수부, 5일 ‘진달래 식당’ 개장

해양수산부가 영광 낙월도에 식당을 연다. 섬 주민과 방문객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낙월도에서 나오는 수산물로 유명 세프들이 개발한 음식을 판매할 예정이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촌을 ‘찾고 싶고 활기 넘치는 어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명품 어촌 만들기’ 과제의 하나로 영광 낙월도에 오는 5일 ‘진달래(來) 식당’을 개장한다. 해수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현장 공감포럼’을 통한 명품 어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민대표·해수부·한양대·한양여대·영광군·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이 이끌고 있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운영 실적 및 고객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향후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며, 마을 공동체나 창업 의향이 있는 청년 귀촌인 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진달래 식당에서 섬 주민과 방문객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어촌에 활용력을 불어넣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어촌에 2호, 3호 섬 마을 식당을 개소하고 다시 오고 싶어지는 명품 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라도 천년’ 슬로건 공모 광주디자인센터 10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는 ‘전라도(全羅道)’ 이름을 정한 지 천 년을 기념하는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전라도 1천 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라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전라도’는 1018년(고려 현종 9년) 전주 중심의 ‘강남도’와 나주 중심의 ‘해양도’가 하나로 합쳐되면서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탄생한 이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 수에 제한이 없다.

새로운 슬로건에는 전라도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미래지향적 ‘전라도 천년’을 담아내야 한다. 네이버 품(naver.me/G1U7dkV5)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 전라남도(www.jeonnam.go.kr)·전라북도(www.jeonbuk.go.kr)·광주광역시(www.gwangju.go.kr)·광주디자인센터 누리

집(www.gdc.or.kr)의 ‘공고/공시’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eolla1000@naver.com)로 오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 1명(상금 200만원), 금상 1명(상금 100만원), 은상 2명(상금 각 50만원), 동상 2명(상금 각 20만원) 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2억, 투자시

월 300만원씩 지불, 1분

-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 경매 진행 물건
- 전화상담 사절

오첨경매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원도 익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판선·별장적합 2억4천
- 원도 익산면 득암리 경관최고부지 31503㎡ 염소사목적합 5억7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정성 북이면 배양홀케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대 대지 144㎡ 주택 118㎡ 주택도공실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코너 대지 93㎡ 주택 94㎡ 가게 22㎡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2천
- 서동 제일피아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평이어전략 4억
- 학순동 신축 대지 320㎡ 국유지 500여평도 사용 복층주택 60여 평 편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태양광 적합지 13435㎡ 2억6400
- 양계장 허기부지 징용률 15000여㎡ 축사해기기도 있음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정적합 1억
- 무안 현관면 비단가 전 4542㎡ 공시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